

韓國電機工業振興會 任職員, (株)宇進産電 工場 見學

韓國電機工業振興會 孔昌德 常勤副會長과 임직원 일동은 지난 '99. 4. 16일 충북 괴산에 소재한 (株)宇進産電을 방문, 공장 견학을 가졌다.

충북 괴산에 소재한 (주)우진산전은 74년 서울 가양동의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우진 OHM사로 출발하여 현재는 7,500m²의 현대식 건물로 종업원 273명, 자본금 102억, '98 매출액 460억원으로 고속 성장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자존심을 지켜왔으며, 또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까지 성실히 해 왔다.

김영창 사장은 연세대 전기과를 나와 전기와 인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남다른 경영철학으로 IMF 상황에 모든 기업이 구조조정에 휘말리는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노사 화합으로 이끌어 오늘날의 우진산전이라는 초우량 중소기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또한, 중소기업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기술개발이라는 신념으로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많은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시장 진출과 선진국들의 기술개발 동향 파악 등을 위해서 일본 동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96년에는 제33회 무역의 날에 500만불 수출탑 수상한 바 있다.

우진산전의 주 생산 품목은 열차 구동장치, 열차 보조전원장치, 열차정보장치, 각종 제어 기기류, 전기기관차용 전기장치, 철도차량용 시험장치 등 전동차 및 철도차량의 핵심 제어 장치는 독자적인 특허 기술로 전량 철도청 및 지하철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 기술개발자금 20억원을 지원받아 전기 기관차용 전력변환장치 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유망 중전기 메이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